

‘국가 R&D 풀뿌리’ 비정규직 연구원의 현실

글 | 양 원 _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yangwon@kitech.re.kr

지난해 여름에 막 접어든 어느 날 아침, 오랜만에 연구소 사무실 자리에 앉아 해야 할 일들을 이것저것 적어보고 있었다. 그 동안 과제기획회의다, 제안서 작성회의다 해서 차분히 앉아 깊이 생각해볼 시간이 없던 차에 이 날은 별다른 일정이 없어 마음에 다소 여유가 있었던 날이었다. 노크 소리가 들린 것은 대충 해야 할 일들 목록을 작성하고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생각하며 심호흡을 하던 참이었다. 평소와 다른 연구원의 얼굴을 보며 뭔가 일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아나나 다를까, 그는 다른 회사에 합격해 2주 안에 일을 정리하고 그 회사로 옮기겠다는 통보였다.

안정된 직장을 찾아 떠나는 비정규직 연구원들

어느 연구소나 마찬가지로 정부출연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역할이란 것이 책임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의 실무 책임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를 추진해나가고 필요시 연구 책임자와 의견을 조율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임무는 함께 일하는 연구원(주로 비정규직)들이 연구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들을 독려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연구원들을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던 차였다. 그런 가운데, 우리 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연구원이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었다. 그것도 우리 팀에서 일했던 연구 실적이 인정을 받아서라면 더더욱 보람 있는 일일 것이다.

“정말 축하합니다. ○○씨가 그 동안 우리 팀에서 연구 수행을

자신의 일처럼 우직하게 열심히 하니깐 길이 열렸나 봅니다. 그런데 ○○씨가 떠난다니까 암담하기도 하네요. 우리 팀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당장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과제 진도보고서를 내야 하는 날이 한 달도 남지 않았고, 막바지 실험을 진행하는 중이었으며, 그 실험을 실제 수행하고 진행했던 사람이 바로 그 연구원이었기 때문이다.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이면서 활용책임자이기도 했던 박사님은 나보다 훨씬 더 당황해하며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아무리 연구 업무가 힘들어도 잘 표를 내지 않는 박사님이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힘든 것은 힘든 것이고 기쁜 일은 분명 또 기쁜 일이다. 직장을 옮긴 그 연구원은 지금도 그곳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워낙에 성실하고, 또 우직한 사람이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래도 참 행복한 케이스이다. 대부분의 경우 위촉(또는 별정직) 연구원들은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원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2년이 되기 전에 연구소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연구원의 경우에도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큰 숙제로 남아 있다. 게다가, 이러한 시스템은 실제 연구 결과의 질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년이라는 기간은 한 명의 연구원이 연구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데 딱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훈련된 연구원이 그만두게 되

면 연구에 적지 않은 차질이 생기게 된다.

주로 에너지 플랜트 설비 연구들을 많이 하는 우리 팀의 경우, 연구원들은 육체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된다. 때로는 장치를 돌리느라 밤을 새야 하고, 때로는 더위와, 때로는 추위와 싸우면서 실험을 해야 할 때가 많다. 고생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들이 이러한 고생에 대하여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 게다가 최단 기간에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야하는 국가 과제 추진 분위기 때문인지 늘 시간과 예산은 빠듯하다. 이러한 분위기는 효율성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이 최고의 선이 돼버린 사회 구조에 기인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실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만다. 정해진 기한 내에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속된 말로 많이 '쫓아달' 수밖에 없고, 이 때문인지 별로 나이 차이도 안 나는 연구원들이 어느 때부터가 같이 있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이 느껴질 때는 -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이들과 마찬가지로였었는데 - 조금 슬프기도 하다.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과제 제안서를 쓰고 기획하고 회의참석하고 하는 가운데 연구원들과 함께 고생하는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안타까움은 더 커진다.



각종 시료를 분석하며 실험에 몰두하는 연구원들(2007년 7월 12일, 사진제공=연합뉴스)

국가 R&D 정책에 연구현장의 목소리 반영되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꾼다는 말도 들리고, 생계형 R&D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연구비 시스템을 고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세계적 기관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다. 현장을 강조한다는 정부이므로, 연구 현장의 여러 소리들을 듣고 좋은 정책을 마련해주리라 기대도 해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가운데, 정부가 중요하게 귀담아들어야 할 현장의 소리로서 국가 R&D의 풀뿌리이고 미래인 이들 젊은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어려움과 아픔이 담긴 소리들을 빼놓지 않길 바란다. 이들이 즐거워야 연구소가 즐겁고, 함께 하는 연구도 즐겁다는 것을 짧은 기간에 많이 경험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바람이 더욱 커진다.

그 동안 이들에게 신경 쓰지 못했던 못한 선임연구원으로서 이 글을 쓰면서 정리를 해보는 참에 우리 연구원들과 부담 없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함께 모일 수 있는 넉넉한 술자리를 조만간 마련해야겠다.



글쓴이는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